

21세기 세계화시대 한국의 열린 민족주의와 동북아시아 평화

이 완 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

| 요약 |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민족주의를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 민족주의는 특정한 정치 체계에 종속된 이념이 아니다. 민족이 있는 한 민족에 대한 사고방식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 체계를 우선시하는 사상으로서,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존재하게 된다. 20세기적 닫힌 민족주의가 외부로 완전히 문을 닫는 폐쇄적 민족주의로 심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열린 민족주의로 전환시킨다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우리 민족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줄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전쟁과 영토분쟁 등은 동북아민족주의가 평화를 지향해 나아갈 때 겪을 수 있는 일종의 난관이다. 그런데 동양 3국이 저마다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다면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을지라도 해소에 의한 평화적 공존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 서론: ‘민족’이라는 개념

‘민족’은 원래 영어 nation이라는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다.¹⁾ 전통시대 용례를 담은 한자어 사전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거나 전근대적 용례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이를 암시한다. 민족에 대한 국어사전 정의를 보면 우리말의 ‘겨레’와 유사하다고 나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우리 종족을 지칭하는 ‘我族’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였으나 민족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을사조약 이후인 1907년 고종 44년에 이르러서였으며 이도 자주 쓰이지는 않았다.²⁾ “且古者兆域有常處, 令國民族葬”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국역본에는 “또 예전에는 조역(兆域)이 일정한 곳이 있어서 국민(國民)들로 하여금 가족장(族葬)을 하게 하였는데”³⁾라고 번역하여 ‘민족의 장례’가 아니라 ‘국민들의 가족장’을 뜻하는 말로 간주되었다. 민족이라는 말은 전통시대의 실록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국민이라는 표현은 쓰였다는 것이 흥미롭다. 조선왕조실록(고종 39건 순종 11건+순종부록 1건 포함⁴⁾)에 국민을

1) Nation의 語源은 라틴어 ‘natio’에서 비롯되었으며, 탄생(birth)·자연(nature)·종족(race)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어원에서 출발된 민족의 개념은 후대에 이르러 문화적·지역적·혈연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그룹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학자들에 따라서 민족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다르다.

2) “조중응이 나인영 등의 공술에 대해 보고하다,” 『高宗實錄』, 高宗 48卷, 44年(1907 丁未/대한 광무(光武) 11年) 7月 6日 陽曆, 3번째 기사. 또한 “일진회장 이용구가 일한 합방 성명서를 발표하다,” 『純宗實錄』, 純宗 3卷, 2年(1909 己酉/대한 융희(隆熙) 3年) 12月 4日 陽曆, 1번째 기사에 민족이 4번 사용되었다.

3) “집의 박안부 등이 월산 대군 분묘에 관해 상소하다,” 『成宗實錄』, 成宗 225卷, 20年(1489 己酉/명 홍치(弘治) 2年) 2月 19日 丁未, 5번째 기사.

4) 세종 13건을 제외하고 10건 이상을 보인 것은 고종과 순종밖에 없으며 재위기간이 짧은 철종은 0건이다. 고종 즉위 이후인 근대에 국민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했

검색해 보면 원문 기준으로 158건의 검색결과가 나온다.⁵⁾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근거하면 인종과 종족, 민족간에 구별은 없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개념들은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경향이 남아 있다.⁶⁾

서구에서도 18세기 이전까지는 nation이라는 개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의 발흥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성립된 이래 민족이란 용어가 비로소 대중화되었다. 민족이 국민에 대신하는 국가의 유일한 구성 요소라는 자각과 주장이 이루어지기는 유럽에서도 19세기 이후이다.⁷⁾ 네이션은 우리말의 민족-국가-국민 세 용어의 뜻

음은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백성(원문 기준으로 1685건), 혹은 ‘民’이라고 칭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 5) “오랑합족의 수오·적개 등 4인의 투항사실과 당시 북방 야인들의 귀화 실태,” 『太祖實錄』,太祖 8卷, 4年(1395 乙亥 / 명 홍무(洪武) 28年) 12月 14日 癸卯, 2번째 기사에 “上即位, 量授萬戶千戶之職, 使李豆蘭招安女眞, 被髮之俗, 盡襲冠帶, 改禽獸之行, 習禮義之教, 與國人相婚, 服役納賦, 無異於編戶. 且恥役於酋長, 皆願爲國民.”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번역하면 “임금이 즉위한 뒤에 적당히 만호(萬戶)와 천호(千戶)의 벼슬을 주고, 이두란(李豆蘭)을 시켜서 여진을 초안(招安)하여 피발(被髮)하는 풍속을 모두 관대(冠帶)를 띠게 하고, 금수(禽獸)와 같은 행동을 고쳐 예의의 교화를 익히게 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서로 혼인을 하도록 하고, 복역(服役)과 납부(納賦)를 편호(編戶)와 다름이 없게 하였다. 또 추장에게 부림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모두 국민이 되기를 원하였으므로”이다. 따라서 여국인(우리나라 사람), 국민이라는 표현은 일찍부터 쓰였다. 조선 초기에도 단일민족의 순혈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그렇지만 세계의 인류를 피부, 머리털, 얼굴 윤곽, 머리의 형태, 몸의 모양과 같은 생물학적 특징으로 분류할 때는 인종이라 부르고, 의식주의 생활 양식, 풍속, 습관, 언어 등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민족이라 한다. 따라서 민족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 7) 차기벽,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1978), p. 13; 차기벽, 『차기벽저작집 2: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한길사,

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⁸⁾ 또한 민족이란 말이 19세기 말엽 유럽으로부터 수입되기 이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에 대신하여 인(人), 종(種), 족(族), 유(類)란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었다.⁹⁾

1. 민족 발전론: 인류학자들의 견해

인류학자들의 해명에 의하면 인류사회 진화의 과정은 대체적으로 개인(man, individual)이라는 단순 개체로부터 시작되어 가족(家族; family) · 지족(支族; lineage) 혹은 씨족(氏族; clan) · 부락(部落; tribe) · 부족(部族; nationality) · 민족(民族; nation) · 민족국가(民族國家; nation-state)의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이다.

개인은 인류사회 진화와 민족을 구성하는 기본적 세포단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류사회와 민족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은 인류사회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사회적 단위-공동체로서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는 친속군체(親屬群體, residential domestic relative group)임과 동시에 자연히 발생된 사회군체(社會群體, natural social group)라고 할 수 있으며, 생물적 · 경제적 · 정치적 기능 등을 지니고 있다.

지족은 씨족의 일부분으로서 몇몇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존재한다. 대다수 전통적 아프리카 사회중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 평가되어 왔다. 가족이 외혼(外婚) 등을 통해 번창하게 되면 가족의 단위 보다 큰

2005), p. 24.

8) 차기벽, 앞의 글(1978), p. 10; 차기벽, 앞의 책(2005), p. 21.

9) 노태돈, “한국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대사논총』, 1 (1991), p. 9.

씨족이 형성된다. 씨족은 혈통을 기초로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지만 혈통과 함께 사회적 요인이 강조되기 시작하며, 씨족의 구성원간에는 문화적 공감대가 존재한다. 부락은 몇 개의 씨족이 모여 형성된 가장 큰 규모의 혈연공동체이며,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된 각각의 씨족들이 모인 문화공동체로서 존재한다. 부족은 몇 개의 부락이 언어와 지리적 위치가 같고,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여 형성된 공동체다. 일반적으로 부족 간에는 하나의 혹은 하나 이상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언어·역사적 전통·풍속·신화 등으로서 나타난다. 민족은 혈연관계와 동일한 문화를 기초로 형성된 단체로서 개인은 민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자(分子)라고 할 수 있고,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이 외혼(外婚)을 통해 점차 지역화·경제화·조직화·종교화를 거치면서 민족으로 성장하며, 이러한 민족은 비교적 배타성을 지닌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최후에는 대외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국가를 성립하려고 한다. 혈연과 문화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 탄생된 후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할 국가를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국가를 우리는 민족국가라고 한다. 현대국가의 대부분은 민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국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존하는 190여 국가 중 극소수의 국가만이 이상적 형태의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고 있을 뿐 절대 다수는 복합민족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다.

2. 민족은 언제 형성되었나

우리와 중국, 일본 즉 동아시아 3국의 경우 민족이 서구와는 달리 근대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홉스봄(Eric J. Hobsbawm)이 ‘역사적 민족’(historic nation)¹⁰⁾이라고 지적했듯이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고대로부터 상당히 동질적인 인종과 문화를 중심으로 일정 지역의 기반위에서 이미 정치적 실체를 구성하여 왔다.

한편 서구에서도 그들의 민족형성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민족형성에 관한 근대주의적 정설(modernist)¹¹⁾에 대해 전근대적 고대기원설(primordialist)¹²⁾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과 히브리인들은 민족의식이 있었으며 이것이 민족의 원류라는 것이다. 물론 중세의 보편주의가 민족의식을 말살했지만 그 원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편 서양의 중세 보편주의에 비견되는 것이 동양에도 있었다. 그것은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이다.¹³⁾

따라서 전근대적 원류를 에쓰니(ethnie)로 보고 근대적 내이션의 사이에 연속성과 단절성을 추구해 보는 견해¹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0) Eric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139.

11)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1983).

12) Edward Shills, "Primordial, Personal, Sacred and Civil T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7 (1957), pp. 113-145.

13)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한(漢)나라 때에도 화(華)와 이(夷)의 이분법으로 세계를 바라보았지만 중화의식은 송(宋)대에 내재화되었다.

14) 이러한 견해는 임현진, 공유식, 김병국, "한국에서의 민족형성과 국가건설," 준봉구범모교수 화갑기념논총편찬위원회 편, 『전환기 한국정치학의 새지평』 (서울: 나

에쓰니라는 말은 스미스가 서구 내이션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했는데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 ‘인종공동체’(ethnic community)란 뜻을 지닌 프랑스어로 동아시아의 족(族)이라는 개념과 상당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¹⁵⁾ 스미스에 의하면 에쓰니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태고로부터 독특한 집합체의 이름을 가짐으로써 다른 부류와 구별되는 자신이 실체(essence)를 지닌다. 둘째 자기네 나뭇의 선조의 내력에 관한 공통된 신화를 가진다. 셋째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공통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역사를 공유한다. 넷째 크게 보아 언어나 종교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습, 제도, 법, 건축, 의복, 음식, 음악, 피부색깔, 신체골격 등 여러 측면에서 공유된 문화특질을 지닌다. 다섯째 특정한 영토를 지님으로써 그 지역 안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혹은 고향이라는 상징적 연계성을 갖는다. 여섯째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강한 정체성(identity¹⁶⁾), 귀속의식과 연대감을 지닌다.¹⁷⁾ 스미스가 말하는 에쓰니는 신화, 문화, 역사의 공유를 통해 타자와 구별되는 명칭을 갖는 사람들로서 특정 영토와 관계되어 있으며 서로 간에 연대감을 보이는 인종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대륙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 내지는 재형성된 민족의 시원체라고 할 수 있다.¹⁸⁾

남, 1994), p. 490에서 주창되었다.

15) 박준혁은 이를 ‘종족’이라고 번역한다. 박준혁, “비지배적 민족주의: 평화 구축을 위한 21세기 새로운 민족주의,” 『국제평화』, 제3권 2호 (2006년 12월), p. 11.

16)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Middlesex: Penguin, 1991). 그런데 정체성의 지나친 강조는 간혹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과도한 정체성 논란은 전쟁까지도 유발한다.

17)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pp. 22-30.

이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의 경우 전근대적 예쓰니와 근대적 네이션 사이에 강한 역동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서구의 나라들은 그 연속성이 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 민족은 언제 형성되었나

민족형성에 대해 국사학계에서는 여러 논쟁들이 있었으나 우리 민족이 기원전 10세기를 전후로 해서 예(濊), 맥(貊), 한(韓) 등의 족(族)이 등장함에 따라 시발을 이루었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 맥, 한의 출현이 외부로부터 이동된 사람들에 의해 발단된 것인지 아니면 신석시대 주민이 농경화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¹⁹⁾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한국 민족형성의 중심에 있다는 견해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²⁰⁾ 그러나 한국민족은 고조선 멸망 이후 나타난 부여, 옥저, 고구려, 삼한 등 여러 원시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소단위 민족들로 융합되어 갔으나, 이들 사이에 동족의식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 의해 통합된 이

18)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p. 32. 스미스의 후속 저작은 다음에 모여 있다. Anthony D. Smith,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1998).

19) 이에 대해서는 임현진, 공유식, 김병국, 앞의 글(1994), p. 493의 각주 13번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 노태돈, 앞의 글(1991);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19 (1992년 겨울).

래 삼국인에 공통된 일통삼한(一統三韓)이라는 동족의식이 확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고려 초 발해인의 이주에 의해 한국민족의 틀이 완성되었다고 노태돈 교수는 주장한다.²¹⁾

그런데 이러한 전근대 민족 형성은 네이션이라기 보다는 에쓰니의 측면이 농후하며 근대이후의 민족국가-국민국가(nation-state) 건설 과정에서 출현한 네이션과 강한 연관관계를 통한 연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민족주의 개념의 다의성

민족주의는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은 용어이다.²²⁾ 보다 극단적인 형태부터 나열한다면 광신-호전적 애국주의인 쇼비니즘(Chauvinism), 감정적 애국주의인 징고이즘(jingoism)에서부터 배타적 국수주의, 닫힌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범민족주의(Pan-nationalism) 등 각각 다른 이념들이 민족주의 범주 안에 포괄되기도 한다. 또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특정 국가의 상황에 따라 민족주의는 다른 양상과 특성을 보였다.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규정하여 다소 전투적인 민족사관을 주장했던²³⁾ 절대독립론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한민족이

21) 위의 글, p. 24.

22) 서중석,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p. 6.

23) 신채호 선생은 1931년에 쓴 그의 저서 『조선상고사』 박기봉 (역) (서울: 비봉출판사, 2006), p. 24에서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시간으로부터 발전하여 공간으로부터 확대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라 규정하였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논리를 통해 유교와 낭가사상, 사대와 보수, 지주 자본가와 농민 무산계층의 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의이며 아(我)민족의 국가는 아(我)민족의 주장한다는 주의”로 정의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변신을 했다. 절대왕정 시기에 생겨나서 근대 시민 혁명기에는 국민주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주의, 제3세계에서는 반식민주주의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민족주의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하나는 다른 민족들의 권리와 가치도 자기 민족과 같은 차원에서 인정하는, 따라서 국제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자기 민족의 권리와 우월성만을 주장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닫힌 민족주의이다.²⁴⁾ 폐쇄적 민족주의는 침략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도 있으며 제국주의와 결합되기도 한다. 국민국가 형성 시기 유럽 민족주의나 3.1독립운동으로 표출된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을 포함한 아시아 민족주의는 전자에 속하고, 20세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민족주의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가 다르게 정의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립구조를 강조하였다. 이는 역사를 정신활동의 결과로 또 역사발전은 서로 모순되고 상극관계에 있는 것이라 보았고, 단순히 아와 비아의 투쟁을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린 투쟁의 정신사를 역사로 보았다. 이 투쟁사관은 민족의 대외경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 24) 복거일에 의하면 열린 민족주의는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데 비해 닫힌 민족주의는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state-forming nationality에 자유를 주었던 민족주의가 소수민족 탄압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다. 복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pp. 63-64. 신유고연방 대통령 밀로세비치는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1998년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단행했고 인도네시아 민족의 일원으로 여겨졌던 동티모르도 독립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20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고 결국 동티모르는 2002년 독립되어 민족은 둘로 분리되었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구화-세계화 시대에 배타적 민족주의나 이것이 더 극단화된 폐쇄적 민족주의가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것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미국 등 서구학계에서는 민족주의가 허구적 개념이라는 식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며²⁵⁾ 동시에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patriotism without nationalism)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²⁶⁾ 전통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국학의 신봉자들이 주축이 되었던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탈근대적(post-modern) 정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식민지시대의 저항적 민족주의나 배타적 국수주의는 이제 박물관이나 역사서에 의지해야 할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한국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로 나가느냐 아니면 민족주의에서 벗어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20세기 일본의 민족주의는 군국주의와 결합하여 결국 태평양 전쟁으로 폭발했으며 결국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약소국 한국의 민족주의는 반외세와 비타협의 지향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제2차세계대

25)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국가가 역사와 형성된 오랜 산물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의 발명품이라고 단언했다.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즉, 민족이란 고대성을 지닌 것이 아닌 산업사회 발전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근대적 가치이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어진 것이다. 민족주의는 상상된 정치 공동체(imagined political communities)에 기반한 균열되고 허구적인 이념이다. 또한 그는 “19세기와 20세기에 민족주의가 정복과 팽창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21세기의 민족주의는 분열과 해체, 응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1983), p. 15;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파주: 나남출판사, 2006)).

26) 박준혁,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과 비지배 평화원칙,” 『아세아연구』, 제46권 4호 (2003), pp. 311-340.

전 종전 후 영토문제와 역사관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갈등은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시대와 유럽연합(EU) 등에서 상징되고 있는 지역통합시대에도 민족국가는 하나의 정치 단위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리제이션에 대처하면서도 민족국가의 단합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글은 한국민족주의의 역사를 통해 그 나아갈 길을 설정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5. 한국근현대사에서 과연 민족주의가 강하게 득세했을까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20세기 한국 민족주의의 대외적 배타성, 폐쇄성 등을 청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⁷⁾ 한국민족주의의 배타성은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뿌리 깊게 내재화되어 세계화시대의 개방적 조류에 거스르며 폐쇄적 민족주의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민족주의가 그렇게 강력하게 내재화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²⁸⁾ 우선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 대해 다소 배타적이

27) 배타성이 심해지면 외부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되고(닫힌 민족주의) 더 심화되면 폐쇄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폐쇄적 민족주의) 폐쇄성은 배타성 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 박지향, “해전사 는 학문이 아닌 정치선언문,”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35805 (검색일 2006년 12월 15일)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전제아래 박지향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폭력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저는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구분해요. 애국이라 하는 것은 애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고 내가 태어난 곳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감정입니다. 애향, 애국이 내주변의 친구들, 가족에 대한 자

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배타적 민족주의가 간혹 가지는 침략성은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없으며 침략에 저항하는 저항성만이 일제시대에 있었을 뿐이었다.²⁹⁾ 저항적 민족주의³⁰⁾는 있었고 독립운동 세력들은 일본에 배타적이었지만 중국과 미국 등의 연합국과는 연대하려 했으므로 저항하고 투쟁했다 해서 외국세력에 모두 배타적이었다고 평가될 수는 없다. 따라서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이면서도 방어적 민족주의였으며 서구인들이 두려워하는 공격적이며 급진적 민족주의는 결코 아니었다. 민족자결과 호혜평등,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우리 민족주의는 침략, 지배, 패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침략 민족주의가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에 저항했을 뿐이었다.³¹⁾ 이렇게 저항민족주의이면서도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속성

연스런 사랑 같은 것이라면 민족주의는 그런 것을 뛰어 넘는 거대 담론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죠.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주장했듯이 ‘상상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29) 따라서 저항성과 배타성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저항성과 폐쇄성도 차원이 다르다.

30) 차기벽, “저항적 민족주의의 문제: 그 대외면,”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서울: 민음사, 1983), pp. 13-14에 의하면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세속화된 시민=중산계급의 대두를 계기로 서구에서 먼저 출현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세계제국과 보편교회의 이념에 반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제도의 지방분권적 현실에 항거하면서 그 중간 형태인 민족(국민)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자생적이라고 말해지는 서구형의 민족주의도 당초부터 〈안에 있어서의 자유〉를 추진한 영국-프랑스의 경우이건, 우선은 〈밖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한 네덜란드-미국의 경우이건 다같이 안이나 밖의 압제에 항거-저항하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서구의 충격에 자극되어 일어난 외생적 민족주의인 독일-러시아 등의 중-동구형이나 아시아-아프리카 후진-식민지형에 비하면 서구형 민족주의의 저항적 속성은 약했다고 평가했다. 중-동구형이나 아시아-아프리카식민지형은 민족의 존망을 건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그 저항성은 지배적 속성인데 비해 서구형은 잔여형(residual) 속성이라고 평가했다.

31) 정연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 비평』

은 20세기 후반 독립 후에도 잔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 사이에 혈연 중심의 배타성은 다소 있었다 할지라도 민족주의가 역사상 제대로 발휘된 적은 거의 없었다. 한국인 개개인의 민족의식은 생성되어 있었지만 조선 왕조 말기 이래 제국주의 침탈이 횡횡하던 각 시기마다 민족주의의 과제가 구현되어 민족의 독립을 지킨 적은 지금까지도 없었다. 대한제국기 한국민족주의는 외세의 침탈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유지하며 전근대적 봉건 왕조를 근대적 민족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독립을 잃었으며, 일제시대 한국민족주의는 민족독립을 되찾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역시 독립을 쟁취하는 데는 실패했다. 해방 직후에는 분단과 외세 정복, 그리고 민족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였으나 외세가 강요했던 분단을 주체적인 역량으로 막아 내지는 못했다. 분단이 고착화된 남북 체제 경쟁의 시대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한국민족주의의 과제가 되었으나 지금도 이 과제 달성은 요원하다. 또한 지나친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자주 자립의 경제, 군사, 정치 체제를 다지는 것도 과제 중의 하나였으나 이 역시 미진하다. 세계화 시대 한국민족주의 제1의 과제는 민족정체성과 국가 주권을 확립하면서 세계화의 바람을 이용하여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돌풍은 국가 주권과 민족 정체성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³²⁾

따라서 한국민족주의는 배타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민족의 독립을 지킬 정도로 강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외세의 침탈 앞에 무장해제 당

(1999년 봄), p. 373.

32) 김영명, “한국 민족주의의 진로,” 『본질과 현상』, 제6호 (2006년 겨울), pp. 50-51.

하는 비운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다소 배타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었지만 배타적 성격도 원래부터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으며 침략에 대항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우리는 원래 해양국과 대륙국의 2강 세력의 이익이 교차하는 반도이다 보니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는 살수 없었던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³³⁾

따라서 우리에게는 배타적 민족의식과 함께 강대국에 대한 추종과 굴종의 사상이 동전의 양면처럼 모순적으로 존재한다. 전통시대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모화사상이 지배층의 이념이었으며 구한말에는 친일파, 친러파, 친청파, 친미파로 사분오열되어 결국 식민지의 낙으로 빠져 들었다. 일제시대에는 민족정체성 이론, 민족개조론 등의

33) '문명교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창하고 있는 정수일(鄭守一)교수는 『한국 속의 세계』(서울: 창비, 2005)에서 조선을 '쇄국과 은자의 나라'라고 보는 데 대해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은자의 나라'라는 말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작위적 오도의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조선을 '쇄국'으로 오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학적 역사인식일 뿐만 아니라 쇄국정책은 한때의 임기응변책이요 한순간의 요동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결코 '닫힌 나라,' '은자의 나라'가 아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증한다. 우선 신라는 이미 '로마문화의 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로마와 교류했으며, 고려인들은 이웃나라들에서 나온 대장경들을 죄다 가져다가 보완, 검토하여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완벽한 '팔만 대장경' 5천2백만자를 완성해 불교를 집대성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무역활동은 동북아3국의 국제관계를 일변시키고, 해상강국 고려의 건국기틀을 마련했다. 고려시대는 '오는 자는 막지 않는다'(來者不拒)는 수용정책으로 외래인들을 대량으로 귀화시켰다. 세계종교사상 서양종교를 타율적 선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수용한 나라는 '오로지 조선뿐'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결코 담을 높이 쌓고 그 안에 서만 혼자 살고자하는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열등의식이 친일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해방 후 소련과 미국의 점령 때문에 친소파와 친미파들이 득세했으며 현재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자유롭지 못하며, 대한민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패권에 가장 순종적인 나라들 중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역사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득세했던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사대주의가 우세했던 상황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과잉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허약함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민족주의는 이념이나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보다는 대중의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정념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함이 정당하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고 그 민족주의는 지나치게 거칠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³⁴⁾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서 순혈주의적 인종주의,³⁵⁾ 배달겨레라는 구호로 표출되는 단일민족지상주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이성적 눈으로 보면 진짜 문제는 그 거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보인다는 데에 있다. 실속 없이 목소리만 크기 때문이다. 이론, 정책으로 승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속이 없고 실속이 없는 만큼 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민족주의의 문제는 그 과잉이 아니라 ‘원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³⁷⁾

34) 복거일은 닫힌 민족주의와 그것이 불러오는 거칠 열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p. 64.

35)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은 관용을 강조하는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민족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도 최근에는 ‘이슬람공포증’에 직면해 있어서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골칫거리이다.

36) 북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기까지 한다.

37) 김영명, 앞의 글(2006), p. 53.

6. 동아시아지역의 민족 형성

동아시아³⁸⁾로 시각을 돌리면 현대 동양 3국의 경우 인종적 동질성 면에서 볼 때 남북한은 100%, 일본은 99%, 중국은 91.9%로³⁹⁾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과 일본은 거의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이주해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이 심하며 배타적 경향을 가졌다는 말이다. 아니면 차별이 심해서 개개인의 민족적 기원을 숨겨야 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민족 출신이 쉽게 동화되었다는 말도 된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근대 이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근대적 국민국가와는 다른 예쓰니를 중심으로 한 부족국가, 군주국가(왕국)와 같은 여러 유형의 정치적 조직체가 실존해 왔다.

38) Benedict Anderson, "Asian Nationalism?" *New Left Review*, new series, No. 9 (May/June 2001), pp. 31-42.

39) CIA, *World Factbook*에 기초한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남한은 homogeneous (except for about 20,000 Chinese)이며 북한은 racially homogeneous; there is a small Chinese community and a few ethnic Japanese이다. 일본은 Japanese 99%, others 1% (Korean 511,262, Chinese 244,241, Brazilian 182,232, Filipino 89,851, other 237,914)이며 중국의 민족구성은 다음과 같다. Han Chinese 91.9%, Zhuang, Uygur, Hui, Yi, Tibetan, Miao, Manchu, Mongol, Buyi, Korean, and other nationalities 8.1%, http://www.nationmaster.com/graph/peo_eth_gro-people-ethnic-groups&int=-1 (검색일 2007년 1월 20일). 99.9% 이상 단일민족은 남북한뿐이다. 그 다음이 레소토 99.7%, 모로코 99.1% 일본 순이며 키리바시 98.8%, 바누아투 98.5%, 그리스 98%, 요르단 98%, 이집트 98%, 방글라데시 98%, 튀니지 98%, 아르메니아 97.9%, 리비아 97%, 폴란드 96.7%, 투발루가 96%로 그 뒤를 잇는다. 이 중 모로코와 리비아는 아랍인과 베르베르인(Berber)을 합친 수치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흑인종으로 보면 단일 인종이지만 여러 부족(tribe)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 지역은 다양한 에쓰니들의 공동 생활영역으로 여러 부족국가와 왕국들이 영토와 주민의 보전과 확대를 위해 격렬한 전쟁과 협상을 치렀다. 10세기 전후 송나라의 건국(서기 960년) 후 중화의식이 송나라와 고려에 내재화되기까지 동아시아는 지금의 중국, 한국, 일본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 ‘농업정복국가’였다.⁴⁰⁾ 따라서 동아시아의 고대사는 균용할거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II. 동아시아 역사전쟁

1. 중화민족론과 동북공정

동아시아 역사는 여러 세력들이 경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화민족다원일체’ (中華民族多元一體)란 논리를 통해 모든 소수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면서 현재 중국 강역의 동아시아 역사를 모두 자국 역사로 간주하고 있다. ‘중화민족다원일체론’ (中華民族多元一體論)은 중국의 원로 사회인류학자인 페이샤오통(費孝通)이 1988년 홍콩의 한 심포지움에서 제기한 후 중국 및 해외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개념이다. 페이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 개념을 처음 언급하였고, 이 개념에 입각하여 북경대학 ‘사회학인류학연구소’가 중심이 된 중국의 민족학계는 근년 ‘중화민족연구’와 ‘다원일체연구’를 주제로 중화민족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중화’ (中華)는 이미 2천년

40) 이에 대해서는 임현진, 공유식, 김병국, 앞의 글(1994), p. 500의 각주 31번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서의 중화세계관에서 나온 것이고, ‘민족’은 ‘네이션’이라는 유럽 근대국가 또는 국민민족의 개념이 19세기 이후 일본이 한자로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중화민족이라는 단어 자체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 또는 중국적 세계관과 유럽적 근대국제질서의 교묘한 조화를 시도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페이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⁴¹⁾ 첫째, 한족이 역사적으로 중국 영역에 존재하게 된 것은 여러 민족의 접촉, 혼합,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이며, 그 가운데 ‘중화민족의 응집력’이 생겨나게 되었다. 둘째, 중국 역내에 사는 여러 민족들은 다원적이면서도 일체를 형성하여,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즉 중화민족은 다원적이면서 일체를 이루는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셋째, 중화민족은 ‘자연발생적인 민족실체’로서 수천 년 전부터 서서히 형성되어오다가, 19세기 중엽부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면서 ‘자각적인 민족실체’가 되었다. 페이에 따르면, 중화민족은 중국영내에 있는 56개 민족의 민족 실체로서, 중화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은 보통 민족의 일체감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중국 영내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다. 페이는 여러 민족이 분산되어 존재해온 다원적 상황이 일체화한 과정이 중요하며, 이 경우 응집력의 핵심은 한족이었으며,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의 정체성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도 있지만 공존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을 민족적인 견지에서 단순한 복수민족의 결합이 아니라 중화라는 위계질서 안에 모든 소수 민족이 포괄된다는 말이다.

41) 費孝通(編),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3).

페이는 중국 각 민족이 오랜 역사기간 동안 중원(中原)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세계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투쟁해 오면서 동일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한족은 오랜 역사동안 이미 여러 민족이 융합하여 형성된 민족이고, 한때 중원의 주도권을 가졌던 만주족, 몽골족이나 투쟁에 참여하였던 회족 등도 이제 ‘다원일체’를 이루어 중화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화(中華)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많은 민족들은 ‘내가 오면 내가 물러나고, 내가 오면 네가 가는 식’(來來我去 我來來去)의 통합과정을 거쳐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我中有來 來中有我) 상태가 되어, 이제 중화민족으로서 “다원일체통일체”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중원은 천하의 무대이다. 주변 민족은 강대해지면 무대에 등장하여 연기를 할 수 있다.

페이의 ‘다원일체’는 현재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통일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한족과 각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또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중화민족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화민족에는 한족을 포함, 중국의 56개 민족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 중화민족은 사회학적 개념이기보다는 정치적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아직 소수민족지역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상기시키는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를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족주의는 한족을 다른 소수민족의 상위에 놓는 개념이다. 한족을 중심으로 다른 소수민족이 한족에 동화 또는 융화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융합은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반면에, 동화는 주관적인 의지의 측면이 강조되는 말로, 의지적·강제적인 조작을 포함한다.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정치적 함의를 띠고 있다. 공산권의 몰락과 개혁 개방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는 20세기 말

에 다민족통일국가 중국의 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다. 중화민족 관념이 중국의 민족현실에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측면에서 중화민족론은 현재 정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화민족론은 정치적 실체로서의 국가와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56개의 민족이 모두 중국 국가의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중화민족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일체감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은 지나친 정치적 확대해석이다.⁴²⁾

또한 중화민족 논리에 따라 중국은 과거 경험했던 주변민족에 대한 침략전쟁도 자기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했다.⁴³⁾ 동아시아의 전쟁이었던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을 중국 국내 전쟁이라고 강변했으며⁴⁴⁾ 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소수 민족이 세운 할거정권으로 보았던 것이다.⁴⁵⁾ 발해는 물론 고구려조차 중국 역사의 일부로 보는 인식⁴⁶⁾이 1990년대 초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벌였다. 중국역사학자들이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기는 했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일사양용(一史兩用)이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같은 고구려 역사를 두

42) 최우길, “중국의 민족문제 실태와 정책,” 『시대정신』, 제29호 (2005년 여름); 최우길, 『중국조선족연구』 (아산: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5).

43) 임현진, 공유식, 김병국, 앞의 글(1994), p. 500.

44) “한국 vs 중국 6대 쟁점 비교,” 월간중앙 (편), 『광개토대왕이 중국인이라고?』 (서울: 중앙일보사미디어, 2004), p. 11.

45) 이전복, 손옥량 공저, 강인구, 김영수 역, 『고구려간사』 (서울: 삼성출판사, 1990)에 이미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동북공정의 역사인식인 표출되었는 바, 이러한 인식의 뿌리는 매우 깊음을 알 수 있다.

46) 임현진, 공유식, 김병국, 앞의 글(1994), p. 500.

가지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서기 427년 평양 천도 이전까지는 중국의 역사이지만 천도 이후는 한반도 역사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2002년 2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邊疆史地研究中心(번역하면 국경지방의 지리와 역사연구센터)은 동북공정을 출범시키면서 ‘고구려사 전체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역사는 2000년이 되지 않고 지역적으로도 한강 이남으로 줄어든다. 기원 전 37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700여 년 동안 엄존했던 ‘우리 역사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다.⁴⁷⁾

물론 중국의 역사 왜곡은 대내적 결속용일 수도 있고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며 지금 현재의 현실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기도 하다. 영토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계 일각과 언론에서 중국이 ‘고구려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과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당국이 고구려는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조상의 정권이 라는 것을 인정하므로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한 왕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너무 폐쇄적이며 환원주의적인 민족주의 역사 인식 국사(國史)에 치우치지 말고 고구려사를 동북아시아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김기봉 교수의 주장도 있다.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나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민족간의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쟁이었다는 설명이다. 한-중 간의 논리적 대결이 아닌 감정적 역사전쟁은 고구려사의 유적이 중국에 있고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들을 박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매우 불리한 전쟁이라

47) 최광식, “왜 지금 동북공정인가?: 개혁-개방 이후 ‘소수민족’ 대책에서 출발,” 월간 중앙 편, 『광개토대왕이 중국인이라고?』 (서울: 중앙일보사사미디어, 2004), p. 28.

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한국역사학은 고구려사 문제를 계기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동북아시아 역사공동체를 모색하여 유럽각국이 민족주의를 탈피하여 유럽사의 맥락에서 자국사를 재구성했던 것처럼 동북아시아의 맥락에서 한국사를 서술하자고 주장한다.⁴⁸⁾ 이는 동북아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민족주의의 열린 지향과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능성은 물론 적지만 북한 붕괴 후 북한의 영토 일부분이라도 중국동북지방의 4번째 성(省)이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차 있을지 모르는 외교분쟁과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통일이 중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적대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의 입장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해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분할지배를 통해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 주변 환경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단극구조를 타파하여 동북아의 다자구조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물론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의 일방적 세력권 하에 놓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될 것이지만 말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의 한 축으로서 일본군국주의 확장에 대한 견제력도 될 수 있다. 통일 후의 한반도는 정세가 상대

48) 김기봉, “언제까지 ‘고구려’인가: 매트릭스 사관에서 탈피, 동아시아사로 보자,” 월간중앙 편, 『광개토대왕이 중국인이라고?』 (서울: 중앙일보사사미디어, 2004), pp. 255-263.

49) 이주형,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대한정치학회보』, 제12권 3호 (2005), p. 387.

적으로 안정되며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도 진행할 수 있고, 중국정부도 계속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무상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은 대만과 중국의 통일에도 하나의 거울이 되고 대만의 독립세력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장기적인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 외부세력이 항상 한반도 문제에 쉽게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 국면 유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중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과 중국이 공유해야 한다.

2. 일본우파의 역사인식: 역사교과서의 침략전쟁 미화

일본은 서기 369년부터 562년까지 약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 (任那日本部説)을 정설로 채택하고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다.⁵⁰⁾ 한반도 남부를 자국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학계는 강한 반론을 제기했으며⁵¹⁾ 북한 학계에서

50) 『日本書紀』는 일본 국학과의 남한경영론의 자료적 원천으로 여전히 교정되지 않은 채 일본 고대사의 정설로 활용되고 있다. 江上波夫 (編), 『日本民族と日本文化』 (東京: 山川出版社, 1993), pp. 289-300. 이에 대한 비평은 이근우, 김태식, “『日本書紀』 所載의 伽倻關係 一部 記事의 基礎的 檢討에 대한 논평,” 『韓國學 國際學術會議 論文集』, 제10회 (1998), pp. 341-347; 李根雨,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역사학전공 (1994) 참조.

51) 李炳鉉, 『任那國과 對馬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7); 李根雨, “『任那日本府說』에 대한 批判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韓國情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歷史學專攻 (1983); 李根雨, “任那日本府說과 繼體天皇의 出自,” 『韓國學大學院論文集』, 통권 2호 (1987), pp. 75-95; 한일관계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나 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金鉉球, 『任那 日本部 研究』 (서울: 일조각, 1993); 김인배, 김문배, 『任那新論: 역설의 한일 고대사』 (서울: 고려원, 1995).

도 비판하면서 일본문화는 조선에서 넘어갔고 일본에서 조선소국이 여러 형태로 발전했다는 체계적 연구 성과를 내어놓았기까지 했다.⁵²⁾

임나일본부설에 더하여 2001년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과도하게 강조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모임’(약칭 새역모)의 후쇼샤(扶桑社)판 『역사』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여 일본의 국내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에까지도 파문을 일으켜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빚게 했다.⁵³⁾ 일본의 지배세력의 중심에 있는 우익들은 ‘자학사관’⁵⁴⁾을 벗어나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패전(敗戰)이란 말을 쓰지 않고 종전(終戰)이라고 하며 교과서에서는 중국에 대한 또는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진출’(進出)이라고 하고 군인의 자살을 옥쇄란 말로 표현하여 미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패전에 대한 분패감(憤敗感)을 보인다.⁵⁵⁾ 이런 정신적 맥락에서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적으로 참배하여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005년 3월 일본의 문부과학성 시모무라 정무관이 교과서 검정 때 주변 국가를 배려하도록 한 이른바 ‘근린제국조항’이 자학적 역사교육을 조장한다며 강력히 비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52) 조희승,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0).

53) 정재정,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한국사연구회 226차 월례발표회 (2001. 12. 15).

54) 일본 우익 논객들은 일본 제국주의 비판론을 자학사관이라 칭하고 자신들의 우익사관을 자유주의 사관이라 일컫는다. 한정숙, “‘자학사관’과 식민지배 극복론,” 『한겨레』, 2005년 3월 11일. 새역모는 2차 대전 후 발행된 일본 역사교과서가 역사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자학사관’에 물들어 젊은 세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자랑스런 일본 역사를 발굴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5) 이원순, 정재정 공편, 『일본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동방미디어, 2002);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편,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서울: 역사비평사, 2002).

근린제국조항은 지난 1982년 교과서 파동 때 마련된 교과서 검정기준의 하나로, 근·현대사를 다룰 때 한국이나 중국 등의 인근 아시아 국가를 고려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렇듯 일본은 유럽의 독일과는 달리 침략의 역사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원폭 투하에 당한 최대의 전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동아시아 역사전쟁의 책임은 일본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조장했다는 데 있다고 중국 베이징대 왕위안저우 교수가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냉전체제 출현 때문에 일본의 천황제를 보존하고 정부구조 해체를 보존하는 등 패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군국주의의 잔재를 남겼고 결국 우익세력의 확장 등으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⁵⁶⁾ 따라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일본이 동아시아 사회로 되돌아와 공존민족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맺음말

우리의 거친 인종주의는 혈연적 공동체인 인종에 기초하고 있다. 단일민족의식도 이에서 싹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족’은 오랜 역사적 세월을 함께 해온 동안 형성된 공통의 생활양식, 언어, 생활 지역의 공유, 집단소속감 등을 주요지표로 하는 문화적인 개념이다.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문화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2005년 광복60년을 맞아

56) 왕위안저우,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일본역사교과서 문제의 인식과 대응,” 아시아역사교육 연대 주최, 동아시아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만해NGO교육센터(2006. 12. 16).

실시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정체성이 혈연-지연 보다 소속감을 중시하는 쪽을 변화되었다는 것이다.⁵⁷⁾ 민족이라는 것은 고정 불변하는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부족, 다양한 민족들이 오랜 세월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 결합하면서 뒤섞여 형성되어 온 것이며 변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분열되어 여러 개의 민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민족이 동화되어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만만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빛나는 역사적 삶을 살아 왔다”는 구호는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올지 몰라도 세계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닫힌 세계관을 암시하고 있다. 한반도 내와 인근에 거주하던 여러 다른 부족, 다른 민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정복하고 정복당하면서, 또는 융합되어 오늘의 한민족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는 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역사 해석 일 것이다.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민족주의를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 민족주의는 특정한 정치 체계에 종속된 이념이 아니다. 민족이 있는 한 민족에 대한 사고방식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 체계를 우선시하는 사상으로서,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존재하게 된다. 20세기적 닫힌 민족주의가 외부로 완전히

57)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이 책의 필자들은 한국인들 사이에 혈연을 중시하는 민족정체성으로부터 근대적 정치공동체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 분화하기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을 닫는 폐쇄적 민족주의로 심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열린 민족주의로 전환시킨다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우리 민족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며⁵⁸⁾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정체성⁵⁹⁾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통일의 과정에서도 역시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의 반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통일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주변 국가들이 한국의 통일을 원할 리가 없다. 주위에 있는 나라가 침략적 성격을 지닌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바라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요행히 배타적 민족주의로 통일을 이룬다 해도 세계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경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바이다. 독일은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로 통일을 달성했지만 그런 민족주의는 끝내 몰락했다. 민족 간 공존공영의 원리를 무시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는 과학 기술이 발달한 요즘에 훨씬 더 위험하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의 측면에서나 결과의 측면에서나 개방적 민족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그것은 비단 통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구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열린 민족주의는 한반도 통일을 완성하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지킬

58)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2월 6일 열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회의 개최식 기조 연설에서 닫힌 민족주의는 20세기 유산으로 부정적 요소를 청산하기 위한 의식 개혁운동을 통해 닫힌 민족주의를 탈피한다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동아일보』, 1999년 2월 27일; 『문화일보』, 1999년 2월 26일.

59) 그런 맥락에서 닫힌 정체성은 침략과 대립을 조장하지만 열린 정체성은 공존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 있는 이념이라고 할 것이다.

역사전쟁과 영토분쟁 등은 동북아민족주의가 평화를 지향해 나아갈 때 겪을 수 있는 일종의 난관이다. 그런데 동양 3국이 저마다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푼다면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을지라도 해소에 의한 평화적 공존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高宗實錄』.
- 곽준혁,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과 비지배 평화원칙,” 『아세아연구』, 제46권 4호 (2003).
- _____, “비지배적 민족주의: 평화 구축을 위한 21세기 새로운 민족주의,” 『국제평화』, 제3권 2호 (2006년 12월).
- 김기봉, “언제까지 ‘고구려’인가: 매트릭스 사관에서 탈피, 동아시아사로 보자,” 월간중앙 편, 『광개토대왕이 중국인이라고?』 (서울: 중앙일보사 미디어, 2004).
- 김영명, “한국 민족주의의 진로,” 『본질과 현상』, 제6호 (2006년 겨울).
- 김인배, 김문배, 『任那新論: 역설의 한일 고대사』 (서울: 고려원, 1995).
- 金鉉球, 『任那 日本部 研究』 (서울: 일조각, 1993).
- 노태돈, “한국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대사논총』, 1 (1991).
- _____,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19 (1992년 겨울).
- 박지향, “‘해전사’는 학문이 아닌 정치선언문,”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35805 (검색일 2006년 12월 15일).
- 복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 서중석,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成宗實錄』.
『純宗實錄』.
- 신채호, 박기봉 역, 『조선상고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6).
- 왕위안저우,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일본역사교과서 문제의 인식과 대응,” 아시아 역사교육 연대 주최, 동아시아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만해 NGO교육센터 (2006년 12월 16일).
- 李根雨, “任那日本府說과 繼體天皇의 出自,” 『韓國學大學院論文集』, 통권 2호 (1987).
- , “『任那日本府說』에 대한 批判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韓國情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歷史學專攻 (1983).
- ,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역사학전공 (1994).
- 이근우, 김태식, “『日本書紀』所載의 伽倻關係 一部 記事의 基礎的 檢討에 대한 논평,” 『韓國學 國際學術會議 論文集』, 제10회 (1998).
- 李炳銑, 『任那國과 對馬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7).
- 이원순, 정재정 공편, 『일본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동방미디어, 2002).
- 이전복, 손옥량 공저, 강인구, 김영수 공역, 『고구려간사』 (서울: 삼성출판사, 1990).
- 이주형,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대한정치학회보』, 제12권 3호 (2005).
-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편,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서울: 역사비평사, 2002).
- 임현진, 공유식, 김병국, “한국에서의 민족형성과 국가건설,” 준봉 구범모교수 화갑기념논총편찬위원회 편, 『전환기 한국정치학의 새지평』 (서울: 나남, 1994).
-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서울: 창비, 2005).

- 정연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 비평』 (1999년 봄).
- 정재정,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한국사연구회 226차 월례발표회 (2001년 12월 15일).
- 조희승,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0).
- 차기벽,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1978).
- _____, 『차기벽저작집 2: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한길사, 2005).
- _____, “저항적 민족주의의 문제: 그 대외면,”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서울: 민음사, 1983).
- 최광식, “왜 지금 동북공정인가?: 개혁-개방 이후 ‘소수민족’ 대책에서 출발,” 월간중앙 편, 『광개토대왕이 중국인이라고?』 (서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4).
- 최우길, “중국의 민족문제 실태와 정책,” 『시대정신』, 제29호 (2005년 여름).
- _____, 『중국조선족연구』 (아산: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5).
- 『太祖實錄』.
- 한일관계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나 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한정숙, “‘자학사관’ 과 식민지배 축복론,” 『한겨레』, 2005년 3월 11일.
- Anderson, Benedict, “Asian Nationalism?” *New Left Review*, new series, No. 9 (May/June 2001).
- _____,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1983),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파주: 나남출판사, 2006).
-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Hobsbawm, Eric J.,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Shills, Edward, "Primordial, Personal, Sacred and Civil T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7 (1957).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Middlesex: Penguin, 1991).
- _____,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1998).
- _____,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江上波夫 (編), 『日本民族と日本文化』 (東京: 山川出版社, 1993).

費孝通 (編),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3).